

은퇴 못하는 한국

생업에 뛰어드는 노년층 20만명 늘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19.6만명↑ 596만명 노년층 경제활동 참가 41.1% 고령층은 57.6% 사상 최고

올해 65~79세 노년층 중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0만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가 바뀌며 올해 들어 이 집단에 새로 포함된 사람 수(19만6000명)보다 4000명 더 많은 노인이 일터로 뛰어들었다. 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노년층 인구는 59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6000명 증가했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0만명 증가한 245만명이다. 2019년이 되면서 이 집단에 신규로 편입된 수보다 증가한 경제활동인구 수가 4000명 많다.

작년에는 근로 의사가 없었지만 올해 들어 생각을 바꿔 일하겠다고 나선 노년층이 4000명 순증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41.1%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노년층을 포함한 고령층(55~79

세)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797만4000명, 경제활동 참가율은 57.6%에 도달했다.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노년층 취업자는 238만9000명이다. 이들의 산업별 분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2.8%, 농림어업 25.3%, 도소매·음식숙박업 14.6% 순이다. 이들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와 비교하면 노년층이 농림어업에서 19.8%포인트,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5.5%포인트 높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는 '노인 일자리'와 부동산 임대업 등이 포함돼있다.

노년층 취업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35.4%) 비중이 가장 컸다. 농림어업종사자(24.0%)도 많았다.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종사자(13.3%)는 22.1%포인트, 농림어업종사자(5.2%)는 18.8%포인트 높은 수치다. 자연령층이 많이 종사하지 않는 단순노무업, 농림어업에 노년층 직업이 집중돼있는 셈이다.

노년층을 포함한 고령층 전체의 고용률은 55.9%(773만9000명)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이중 남성의 고용률은 66.6%, 여성은 46.2%다. 생애 동안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3.7%(51만명)로 이중 여성이 96.2%(49만1000명)를 차지했다.

“자율주행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 이제는 현실입니다”

우아한형제 新사업 '미래식당 시스템' 선보여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 민족'에 이어 외식업계 패러다임을 바꿀 신사업에 도전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개발, 음식점 전단지를 대체하고 배달 시장을 형성·확장시킨 선두업체다. 초기에는 가능성까지 의심받았으나 배달 시장은 3조원 규모로 이용자수는 2500만명(2018년)에 이른다.

배달앱에 이어 도전하는 신사업은 '미래식당 시스템'이다.

미래 외식산업에 활용될 최신 기술을 개발, 외식 매장에 적용해 미래형식당을 확산시켜 푸드테크 선도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다.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은 스마트오더, 자율주행 로봇 등 최신 기술을 한 곳에 집약한 '미래식당'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1호 미래식당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탈리아 퓨전 레스토랑 '메리코치킨'이다. 이 매장은 주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대면 모바일로 운영된다. 국내 최초의 시도다.

메리코치킨 점주는 따로 있다. 우

아한형제들은 주문, 서빙, 매출관리 등 음식점 운영 시스템에만 관여한다.

주문은 '메인스마트오더'로 이뤄진다. QR코드 주문 방식으로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 각 테이블에 부여된 QR코드를 찍으면 메뉴 확인, 주문, 결제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고객은 기다림 없이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음식을 주문하면 된다.

서빙은 자율주행 로봇이 맡는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장 내 테이블 구성, 고객과 직원의 동선, 주방과 테이블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해 레스토랑에 가장 잘 맞는 로봇 2종을 배치했다. 로봇은 한번에 최대 4개 테이블에 주문 음식을 나눌 수 있다.

주문, 매출 비용 등도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적용, 전산으로 자동 관리돼 매장 관리도 간편하게 해결된다.

윤현준 우아한형제들 신사업부문 부사장은 "메리코치킨은 일반 고객을 위한 레스토랑인 동시에, 미래 외식업의 쇼룸이기도 하다"며 "이곳에 적용된 기술들이 머지 않아 일반 음



미래식당 컨셉의 메리코치킨에서 서빙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식집에도 널리 쓰이게 될 것인 만큼 외식업 관계자 및 자영업자 분들도 많이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미래식당'을 선보이기 위해 조차내 신사업부서를 신설하고 2017년부터 미래기술사업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신사업부서에는 개발자, 운영, 기획 디자인 등의 전문 인력이 배치됐다.

메리코치킨은 그 결실이자 향후 시장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인 셈이다. 소비자에게는 체

험형 매장이자, 외식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첫 번째 영업매장이기도 하다.

우아한형제들은 미래형 매장 운영 수요가 늘고 외식업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배달앱 회사가 전 단지를 없애고 배달 시장을 만든 것처럼, 외식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기술을 앞장서 발전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혼직장인 65.9% '맞벌이' 한다

부부 모두 중기 다니는 맞벌이 월 가계소득 평균 467만원

미혼 직장인 10명중 6명 "결혼한다면 맞벌이 할 것"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혼 직장인 10명중 약 7명이 '맞벌이를 한다'고 답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혼 직장인 1887명의 '맞벌이 현황'을 조사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중 약 7명이 답하는 65.9%가 '맞벌이를 한다'고 답했다.

자녀가 없는 직장인의 맞벌이 비율(74.7%)이 자녀가 있는 직장인(64.5%)보다 소폭 높았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맞벌이 비율은 통계청이 집계한 맞벌이 가구 비율(2017년 기준) 44.6% 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전체 직장인 대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직장인의 맞벌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

부부 모두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직장인의 가계소득은 월 평균 467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외벌이 직장인(평균 292만원)의 소득보다 176만원 높은 수준이다. 비율로는 두 배가 아닌 1.6배(160%)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가계소득에 대한 중기 직장인들의 만족도는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모두 낮았다. '현재 가계소득은 적당한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6%가 '적당'고 답했다. 맞벌이 직장인 중에는 79.9%가, 외벌이 직장인 중에도 87.7%가 '현재 가계소득이 적다'고 답했다.

'현재 가계소득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맞벌이 직장인 중에는 18.1%였

고, 외벌이 직장인 중에는 10.1%에 그쳤다.

중기 기혼직장인들의 희망하는 월 가계수입은 558만원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직장인이 희망하는 월 가계수입은 평균 608만원으로 현재(평균 467만원)보다 30% 높은 수준이며, 외벌이 직장인이 희망하는 월 가계수입은 평균 459만원으로 현재(평균 292만원)보다 57%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혼 직장인 중에는 결혼한다면 '맞벌이를 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과반수이상으로 많았다. 잡코리아가 미혼 직장인 1142명에게 '결혼한다면 맞벌이를 할 계획인가'라고 조사한 결과, 과반수이상인 61.3%가 '맞벌이를 하고 싶다'이라 답했다. 이어 '배우자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32.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벌이를 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5.9%로 극소수에 그쳤다.

오비맥주 내달까지 '한시적' 가격 인하 카스 출고가 4.7% ↓

오비맥주가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내린다. 카스와 발포주 '필곳' 2제품에 한해서다.

오비맥주는 여름 성수기에 맞춰 국산맥주의 소비촉진과 판매활성화를 위해 카스 맥주의 출고가를 패키지별로 약 4~16% 인하여 공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스 병맥주(500ml 기준) 출고가는 현행 1203.22원에서 1147.00원으로 4.7% 내린다. 발포주 필곳 캔은 355ml 10%, 500ml는 41%의 인하폭을 적용했다.

인하된 출고가가 적용되면 대형마트에서 355ml 캔의 경우 12켤을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